

# 보 도 자 료



한국토지주택공사

배 포 일 시

2019. 11. 19. (화)

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지역균형발전처

토지주택연구원

담 당 자

최준엽 차장(055-922-4293)

김륜희 수석연구원(042-866-8660)

## LH, '국가균형발전 대토론회' 개최

- 균형위·국토부·경사연·협의회·국토학회와 함께 19일 토론회 개최
- 정책 주요가치 공유 및 시대변화에 맞는 정책방향 모색

LH(사장 변창흠)는 성공적인 균형발전정책 수행을 위한 '국가 균형발전 대토론회'를 19일(화)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LH가 함께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국가균형발전 분야 관계자들이 모여 정책 주요가치인 분권·포용·혁신에 대해 공유하고,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 및 시대 흐름에 대응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총 2부로 구성된 토론회 중 1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시간으로,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협력사업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본부장이 '행복한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 유토피아 구성'에 대해 발표하며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2부는 국가균형발전 분야 개별 정책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확산 방안을 찾기 위해 진행됐으며,

김은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과 원광희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원, 임정민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 각각 '혁신도시 시즌2', '지역발전 투자협약', '새뜰마을사업'에 대해 발표하며 지역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주제발표 뒤에는 6개의 주최기관을 비롯해 관련 학계와 협회, 지자체·관계기관의 전문가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균형발전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토론이 이뤄졌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참석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아낌없는 정책 지원을 약속했으며,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많은 균형인들이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초광역 협력, 농촌 유토피아 조성의 필요성과 취지를 공유하고, 추진동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균형발전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최근 '균형발전 본부'와 관련 사업조직을 신설하고 지역현안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변창흠 LH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도권과 광역시, 중소도시, 농산 어촌 각각의 특성과 매력을 살릴 수 있는 지역발전 전략과 함께 지방과 중앙정부, 지역과 지역 간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주거 열악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천적 모델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토론회 사진은 14시 경 추가로 배포할 예정입니다.